

들국화 아이들

한철에 돌아 불만한 기억 한 가지쯤은 남겨야, 삶은 따뜻해질 것이다. 돌아볼 게 없는 삶은 삶이라고 할 게 없다. 삶이란 기억의 축적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학창시절은 앨범 속에 가장 잘 농축돼 있다. 그래서 작가들은 기억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란 결국은 기억일 뿐이고, 미움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해 아름답고 기뻐던 순간만을 편집해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이고, 미움이란 그 반대의 기억이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많은 기억을 쌓아가는 곳은 어디까. 그곳은 가정 혹은 가족이다. 가족은 내 삶의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기억의 창고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이다.

그러면 가정은 그 기억의 창고를 어떻게 채우고 정리해야 할까.

작고 따뜻한 기억 하나

요즘 집에 돌아가면 날 흐뭇하게 하는 게 하나 있다. 지난 가을의 추억을 듬뿍 담고 있는 것이다. 대단하고 폼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주변에서 흔히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일상 속의 것이라 대부분 외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것이다. 그 칙칙한 풍경의 늦가을에 대한 기억을 그나마 따뜻하게 하는 건 그놈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억만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무수하게 쏟아내는 향기로 당장 나의 현실을 향기롭게 해준다.

무엇이냐고? 들국화다. 사과 만한 베주머니에 담긴 말린 들국화 꽃이다. 아이들 방 잠자는 곳 머리맡에 하나씩 걸어둔 들국화 베주머니다. 들국화의 덕성은 많다.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깊은



잠을 자게 해주고, 감기 등 가벼운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고 한다. 이런 덕성 때문에 밤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제격일 것이다. 현관에 두면 바람만 스쳐도 깊고 그윽한 향기를 퍼뜨리는 게 들국화이니, 오가는 이들에게 줄 것은 없어도 향기는 듬뿍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봄 민들레가 포장도로 틈새에서도 자라듯, 늦가을 들국화 역시 손톱 만한 땅만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향기를 뿌린다. 가시덤불도 뚫고 자란다.

늦가을 찬바람 불어 만물이 고개를 숙이고, 일년생 풀들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쯤 들국화는 돌연 나타나 비 온 뒤 대나무 죽순처럼 자란다. 시들어가는 풀꽃들을 배경으로 한 갑작스런 출연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무럭무럭 자란 들국화는 출현하고 보름 여 만에 병아리 부리보다 노란 꽃을 무더기로 피운다. 한 줄기에 20-30송이는 매달릴 것이다. 그래서 늦가을 벌들에게 마지막 양식을 공급하기도 한다.

들국화를 닮은 아이들

이런 덕성 이외에도 들국화가 특별히 기특한 것은 그것이 아이들을 닮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항상 걱정의 대상이다. 언제 커서 제 몫을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뒤쳐져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싸우다 맞고 돌아오지 않을까. 놀다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라, 저놈이 언제 저렇게 철이 들었을까?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마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였던 들국화가 늦가을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아름다운 향기를 다

북히 쏟아내는 것처럼 말이다.

땅과 태양은 들국화가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내색도 않고, 물과 양분과 햇살을 준다. 그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도대체 싹이라도 티울 것인지 못 티울 것인지 관계없이 그렇게 가꾼다. 태생적으로 그것들은 들국화는 그런 놈이려니 알고 있고, 자연의 이치에 대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기쁨과 희망이 된다

부모 노릇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대지가 그러하듯 믿고 또 믿으면 될 일이다. 더디 싹을 틔운다고, 혹은 잠풀 더미에 뿌려졌다고, 차디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다. 물과 양분과 햇빛을 아낌없이 주면 될 일이다. 힘든 일이 아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다.

자신은 존경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자신의 기억의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너는 우리의 기쁨이다. 너는 우리에게 희망이다. 잘 나서 기쁨이고 희망이 아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는 거기에 있는 그대로 기쁨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하늘님이다.

기억의 창고에 그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이들은 자신과 남을 똑같이 존경하게 될 것이다. 사랑 받으며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미움 속에서 자라면 세상을 증오하게 된다. 그리고 존경과 사랑은 바이러스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하다. 한 친구에게 존경받으면 다른 친구를 존경하게 된다. 그래야 수학능력시험만 끝나면 아이들이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PPFK